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에 따른 재해율

신철임¹ · 강태선² · 이관형³ · 김원기⁴ · 김수근^{5†}

¹한국쓰리엠, ²노동부 성남지청, ³한국산업안전공단, ⁴와이즈에이치,
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by the Hired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in Manufacturing Industry with 50 Employees or More

Shin Cheol Lim¹ · Kang Tae Sun² · Yi Kwan Hyung³ · Kim Won Ki⁴ · Kim Soo Keun^{5†}

¹3M Korea Ltd

²Sungnam Regional Labor Office, Ministry of Labor

³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⁴WiseH

⁵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angbuk Samsung Hospit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state of precarious employee.

Methods: The questionnaire of this survey is composed of 9 categories that are the workplace general information and the st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OSH organization, OSH education and training.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the Manufactur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where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is higher, the OSH state is worse. To verify this hypothesis, we grouped the subjects into three categories by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like as 0%(all standard employee), less than 30% and 30% or more. Using the SPSS 12.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to find affective factors for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Results: 2,633 manufacturing workplaces were included for subjects. The proportions of precarious employee were 9.6 %. In manufacturing industry, about 70 % companies had no precarious employee. 16.8 % companies were in less than 30 % group, 13.2

% companies were in 30% or more group. For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the precarious group were 0.85(±1.8), 1.19(±2.9), 0.59(±1.1). There was a trend that the higher precarious proportion groups was the higher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is more strong relationship than company size and OSH committee.

Conclusions: We could find a significant resul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hiring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and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in manufacturing industry with 50 employees and more.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ecarious employe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접수일 : 2008년 1월 21일, 채택일 : 2008년 9월 9일

† 교신저자 : 김수근 (110-746 서울 중로구 평동 108번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Tel: 02-2001-2445, Fax: 02-2001-2650, E-mail: ksg6201@empal.com)

I. 서론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급격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래 10년간의 노동환경 변화의 핵을 이루고 있다. 비정규직의 불평등한 저임금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2월 이후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이 잇따라 있었다. 최근 관련법의 제·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완결이 아닌 출발일 뿐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사실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서 핵심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을 얼마나 수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거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이 갖는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일 것이다. ‘차별’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정의보다는 실제로 ‘건강’과 ‘안전’이 더 시급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우리의 염려가 매우 근거 있는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Quinlan 등(2001)이 수행한 연구인데 그는 비정규직과 근로자 안전보건현황에 관한 93개 논문을 메타분석기법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90% 이상의 관련 연구가 불안정한 고용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지표(객관·주관적 재해율, 결근, 교육 및 준수 등)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임영훈 등(1999)이 실시한 조사가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최초의 직접적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총 1,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상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48,556명 중 재해자수는 601명으로 재해율이 1.24%로 정규직 근로자의 재해율 1.1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재해율이 각각 1.78%, 1.39%로 나타났고 비제조업(건설업 포함)에서는 0.64%, 0.32%로 비정규직의 재해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규모별, 업종별 층화추출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단순통계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안전보건현황에 대한 국내 최초 실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조명우 등(2005)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역으로 실시한 2005 동향조사 심층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는데 제조업에서는 계약직과 일용직을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에서는 고용형태 요인보다는 교대근무 여부가 재해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에서는 원/하도급사의 일용직 비율과 재해율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김일호 등(2006)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보건식행태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요인의 건강영향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을 제어하고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만성질환에 더 많이 이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5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이며 이 조사방법은 규모별 업종별 층화추출한 제조업체 2,633개, 비제조업체 1,439개 및 건설업 941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관계자에 대하여 면접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정규직의 범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2005년도 동향조사 설문지 상에서 비정규 고용근로자(임시고용, 단시간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전체로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갖는 산업안전보건적 함의으로써 Quinlan 등이 제시한 ‘불안정한 고용(precarious employment)’이라는 정의를 차용하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해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 주요지표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Table 1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따라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재해율은 ‘재해율 평균(0.94%)미만’과 ‘재해율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산재율이 유의하게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명력 또한 비교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았다. 재해율은 사

업장 규모가 클수록 유의하게 낮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하여 재해율도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행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행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오히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Quinlan 등은 메타분석 연구에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경제적(Economic & reward factors), 조직적(Disorganization), 법적(Regulatory failure)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역시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분화 되었다기보다는 위험공정의 사회적 거래인 도급 또는 용역을 통해 양산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빠른 생멸주기를 가지고 있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해, 근로자들의 잦은 이동양상이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동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채용비율과 안전보건현황과의 관련성을 제조업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비율 변수를 몇 개로 범주화(0%, 30%미만, 30%이상 등)하였고 이에 따른 재해율 등 주요 안전보건 변수를 분석하였다. 범주를 나누는 ‘비정규직 고용비율 30%’는 동향조사 결과에서 전업종의 비정규직 비율인 27.6%를 올림하여 활용한 것이다.

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평가에서 재해율이 가장 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비율과 산재율은 관련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재해율이 유의하게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명력도 사업장 규모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유력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장 규모도 각각 유의하게 재해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수록, 사업장이 클수록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행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재해

Table 1.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by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in manufacturing industry with 50 employees and more.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SD)
0%	0.85 (1.8)
lower than 30%	1.19 (2.9)
30% or more	0.59 (1.1)
Total	0.94 (2.2)

Table 2. Logistic regression of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in relation to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and OSH system in manufacturing industry.

Variables	B	S.E.	Wald	df	p-value
The number of employees*	-0.16	0.034	22.558	1	0.000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employee	0.18	0.037	24.305	1	0.000
OSH committee [†]	-0.19	0.051	14.248	1	0.000
Safety manager nomination [‡]	-0.23	0.189	1.466	1	0.226
Health manager nomination [§]	0.93	0.140	43.704	1	0.000
Constant	-1.14	0.171	44.135	1	0.000

* The number of employees : 5 categories (50~99, 100~299, 300~499, 500 or more)

[†] OSH committee : No OSH committee,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ubstitution for OSH committee=0, OSH committee =1

[‡] Safety manager nomination : not nominated =0, nomination by proxy or nomination =1

[§] Health manager nomination : not nominated =0, nomination by proxy or nomination =1

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형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오히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결과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Form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the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2. Available from <http://agency.osha.eu.int/publications/reports/206/en/index.htm>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Available from <http://agency.osha.eu.int/publications/factsheets/>

V. 결론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산재율이 유의하게 평균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력도 사업장 규모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유력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장 규모도 각각 유의하게 재해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수록, 사업장이 클수록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형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대형 또는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오히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노동사회 2005(10).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김일호. 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1차). 2002;5.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강권의 현실 (울산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5.

임영훈.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조명우. 고용형태 및 작업조건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역 보고서. 2005.

Quinlan et al. The Global Expansion of Precarious Employment, Work Disorganization, and Consequences for Occupational Health: A Review of Recent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001;31(2);335-414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Research on New